

# 베트남 진출환경과 전략

李 吭 九\*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베트남시장이 베트남 정부의 야심찬 개방, 개혁정책 추진에 따라 '경협의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국토면적면에서는 우리나라의 1.5배, 인구면에서는 1.7배에 달하고 있는 베트남은 저렴하고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과 자원, 그리고 막대한 시장 성장잠재력에 따라 구미 선진 각국과 동남아시아 선발 개도국들의 투자대상지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국내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베트남시장의 진출환경을 평가해 보고 진출전략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1. 경제현황

세계 12위의 인구대국이면서 농촌인구의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은 2020년까지 여타 아시아 개도국과 같은 고도성장을 이루고 국제 상업 및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경제개발과 개혁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1986년 이후 베트남 경제는 자유화와 개방화의 기치 아래 과감한 경제개혁조치들을 통해 건실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도이모이(쇄신)정책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사유

기업과 기업합병을 허용하는 등 자유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농업 잉여생산물의 자유판매를 허용하며, 농업부문·소비재 부문·수출부문의 우선적 발전을 촉진하는 등 시장경제의 도입을 통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 베트남 경제현황

(단위 : 십억달러, %, 동)

|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G D P   | 15.4  | 9.5    | 12.8   | 15.8   | 19.2   |
| GDP 성장률 | 6.0   | 8.6    | 8.1    | 8.9    | 9.5    |
| 소비자 물가  | 100.0 | 25.0   | 5.3    | 14.5   | 13.1   |
| 수 출     | 2.09  | 2.58   | 2.99   | 4.25   | 5.2    |
| 수 입     | 2.34  | 2.54   | 3.92   | 5.83   | 7.52   |
| 경 상 수 지 | -0.4  | 0.3    | 0.2    | -0.9   | -1.4   |
| 달 러 환 율 | 9.390 | 11.181 | 10.641 | 10.900 | 11.010 |

자료 : 산업연구원

이러한 정책의 추진 결과 베트남 경제는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5차 5개년 계획기간(1991~1995)중의 연평균 성장목표치인 5.5~6.5%를 크게 상회하는 연평균 8.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베트남 경제의 성장은 제조업과 서비스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와 경공업제품 중심의 수출 증가가 성장세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1989년만 해도 세자리 수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던 베트남의 물가는 1995년 12.3%로 상승률이 낮아진 후 지난해에는 7%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투자 확

\* 産業研究院 北美研究팀 責任研究員

대와 소비 증가로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물가억제를 위해 긴축재정정책, 상업신용 억제 및 수출입 통제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 9.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베트남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약간 높은 9.5%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이 2000년까지 7.5~8.0% 수준을 유지하고 2001~2005년중에는 8.0~9.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경제개혁조치가 계속되고 베트남 경제의 해외자금 흡수능력 향상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정부 공공투자의 공백을 다소 보완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한편 베트남의 수출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1~1995년중 교역규모는 연평균 20% 이상이 증가하여 1995년에는 12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자본재 수입의 급증으로 무역수지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경제운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베트남의 무역수지적자는 1995년 23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50억달러에 육박하였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수지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으로는 쌀, 커피, 대두 등의 농산물과 수산물, 석탄, 석유, 고무 등의 원료, 의류, 등·축제품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수입품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 강재, 석유, 비료, 가성소다, 면, 의류, 식품, 의약품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러시아, 한국 등이며, 수입대상국으로는 싱가포르, 일본, 한국, 프랑스, 대만, 러시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베트남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촉진과 역내 국가와의 경제협력 관계강화를 위해 1995년에 아세안에 가입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 2. 진출환경 및 외국인 투자현황

### (1) 시장 진출환경

베트남 정부는 1986년 이후 사회주의 국가 독점무역체제를 개혁하고 외국인투자법을 공포하는 등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은 동남아국가중에서는 비교적 개방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투자비율이나 투자대상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은 투자형태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2개 이상의 업체가 분업생산을 포함한 여타 형태의 합작경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영합작계약(Contractual Business Cooperation), 합작투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사 합작기업(Joint Venture Enterprise), 100%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되는 외국인단독투자기업(Enterprise With 100 Percent Foreign Capital)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출가공구(Export Zone)내에 위치하는 수출가공기업 형태와 베트남 정부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운영을 맡는 형태도 있다.

베트남의 법인세율은 10~25%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수입설비에 대해서는 무관세 등 우대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베트남의 법인세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일반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5%

이며,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10, 15, 20%의 세율이 차등적용된다. 또한 수출가공구에 위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익이 발생한 후 최초 1~4년간은 법인세가 면제되며 이후 2~4년간은 50%가 감면된다. 과실송금에 대해서는 5, 7, 10%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표 2) 생산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 (단위 : 달러, %) |      |      |       |
|--------------|------|------|-------|
| 임금수준         | 숙련공  | 미숙련공 | 관리·감독 |
| 50미만         | —    | 37.5 | —     |
| 50~ 99       | 33.3 | 56.3 | —     |
| 100~149      | 44.4 | 6.3  | 12.0  |
| 150~199      | 11.1 | —    | 20.0  |
| 200~299      | —    | —    | 32.0  |
| 300~499      | 5.6  | —    | 36.0  |
| 500~999      | 5.6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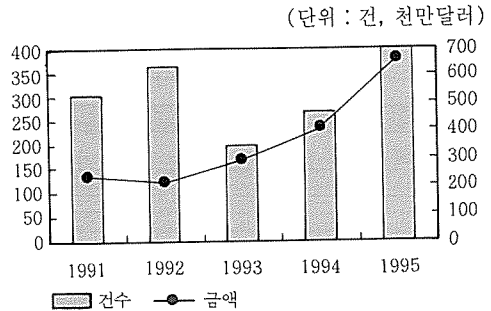
자료 : 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은 도시지역이 월 40~50달러, 농촌지역이 월 35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숙련공의 경우 월평균 임금은 업종과 직종에 따라 편차가 커 50~149달러 수준이며,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40~50달러로 중국의 60%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3년간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숙련공 및 관리·감독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베트남 국민은 동남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교육수준도 높아 양질의 노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분야는 수출 상품과 수입대체 상품, 선진기술의 이전과 기존 공장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분야, 원료 및 천연자원을 가공하는 노동집약적 분야, 사회간접자본, 관광·항공·해운·선박·수리 등 외자획득이 가능한 서비스분야를 들 수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 산업공단을 육성하고 있다. 현재 수출가공공단 6개소와 산업공단 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수출가공공단은 산업공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출가공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생산제품의 전량을 수출하여야 하나 산업공단내 기업은 국내시장에 생산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수출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뿐 아니라 무역금융제도, 로컬 L/C 제도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자료 : 베트남, 계획·투자부

주 : 1991년은 1988~1991년중의 누계치임.

건수는 좌축, 금액은 우축임.

(그림 1)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최근 베트남시장의 진출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베트남 국가기관지인 '베트남 뉴스'지는 외국 기업인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이 여전히 많음을 지적하였다. 베트남 주재 외국인 기업가들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투자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 불투명과 비용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건축, 수출입절차 등 행정절차를 개혁하거나 또는 크게 간소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동 신문은 베트남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태국이나 필리핀과 비교하여 매우 복잡한 절차

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는 한 일본 기업인은 베트남에서는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행정기구들도 복잡하고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혼란스럽다고 말한다. 베트남이 풍부한 젊고 저렴한 노동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막상 현지 투자 기업들이 숙련공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외국어에 능하고 경영관리능력을 갖춘 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인 기업들의 현지비용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일례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항공료 차별이 여전하며, 각종 보험료도 비싸고 통신요금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수입시장개방에 따라 저렴한 외국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가격통제와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기업들의 현지 생산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와 WTO 가입에 대비해 최고 200%에 달하는 수입관세를 향후 10년간 5%대로 낮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관세 인하로 수입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현재 30%를 차지하고 있는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 및 투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어서 베트남시장에서

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최근 베트남은 무역규모의 확대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1992년부터 실질이자율을 도입하고 여신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중앙은행과 국영 상업은행으로 구성된 은행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또한 1995년 10월에는 은행, 리스 등 외국 금융기관들이 합작 혹은 단독투자 등의 형태로 금융리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리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기계, 설비, 자산 분야로 법정 최소자본금은 500만달러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민영화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자본금이 30억동(약 27만달러) 이하의 국영기업 주식매각은 현 시단위의 인민위원회가 담당하고, 그 이상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만 중앙정부의 민영화위원회가 허가한다. 둘째, 종업원과 일반투자자에게 주식을 매각한 기업은 민영화 후 2년간에 걸쳐 50%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영화 기업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와 개인의 업적에 따라 주식을 배분하고, 1인당 분배주식은 종업원 6개월분 급여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하며, 기업 발행 주식총액의 10%를 상회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배부된 주식은 당해 기업에 그 자녀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는 전매할 수 없다. 이외에도 종업원은 필요한 경우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한 연리 4%의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6월의 정부령을 통해 베트남 내에 등기된 모든 법인 및 18세 이상의 개인은 누구나

〈표 3〉 아세안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1994)

(단위 : 백만명, 십억달러, 달러)

|         | 인 구 | GDP | 인당소득   | 수 출 | 수 입 |
|---------|-----|-----|--------|-----|-----|
| 인도네시아   | 193 | 162 | 840    | 40  | 32  |
| 말레이시아   | 20  | 71  | 3,547  | 59  | 60  |
| 필 리 핀   | 67  | 64  | 953    | 13  | 23  |
| 싱 가 포 르 | 3   | 66  | 22,139 | 96  | 102 |
| 태 국     | 59  | 142 | 2,403  | 45  | 54  |
| 브 루 네 이 | 0.3 | 6   | 20,000 | 2   | 3   |
| 베 트 남   | 72  | 14  | 195    | 4   | 8   |
| 합 계     | 414 | 525 | 1,268  | 259 | 282 |

자료 : 산업연구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민영화 기업의 주식매입을 금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이 민영화한 후 발행하는 전환사채는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대외개방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베트남의 무역, 외국인투자 및 경제구조는 커다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동차산업과 연관해 볼 때 베트남의 도로사정은 매우 열악한 편이며,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들도 대부분이 중고 자동차인 실정이다. 현재 녹다운 수입물량규제로 인해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으며, 수량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부진한 내수로 인해 경쟁환경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2) 외국인 투자현황**

원유, 석탄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수산 자원 및 농림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자원보고이며, 안정적인 임금을 바탕으로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외국자본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1987년 12월에 ‘외국인투자법’을 공포하여 시장을 개방하였다.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는 1989년 이후 본격화되어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7%가 증가한 88억달러에 달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1996년 말 현재 1,633건 284억달러의 외국인 대베트남 직접투자가 이루어져 있다.

국별로는 지난해 싱가포르가 32건, 27억 6,000만달러의 투자를 허가받아 최대투자국의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홍콩이 16건, 12억 6,000만달러로 2위를, 우리나라가 46건, 8억 2,600만달러로 3위를 차지하였으

며, 세계 최대의 해외직접투자국인 미국은 12건, 9,300만달러의 투자로 13위를 차지하였다. 미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부진한 이유는 1994년 2월까지 미국정부가 미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규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본기업들도 베트남 정부의 규제, 부패의 만연, 도로, 전력 등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으로 베트남 진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다.

지난해 외국기업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는 중공업, 원유·가스, 경공업, 식품가공, 사회간접자본 건설, 운송, 통신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지 경영에 필요한 지원시설이 부족하여 호텔, 사무용 건물의 신축에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대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는 화교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의 통일전에 상권을 장악하였던 화교자본은 최근 베트남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계획에 따라 현지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베트남 투자형태는 현지 기업과의 마찰을 축소하기 위해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를 점차 선호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기업의 베트남 투자형태는 합작투자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신뢰할 수 있는 합작파트너의 선정이 어렵고 현지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사회 의 만장일치제 등과 같은 기업진출 및 운영상의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합작진출 형태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최근 외국기업의 대베트남 직접투자가 허가기준으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기업들은 투자허가를 받은 후 베트남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상당기간 동안 투자를 미루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이면에는 베트남을 떠나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원유·가스분야에서의 퇴출이 두드러지며, 실레로, 미쓰이상사가 가스개발 프로젝트를 포기하자 합작사인 브리티쉬 오일도 투자계획을 축소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토탈사도 베트남 최초의 원유정제설비 건설을 포기하였으며 관련 호주기업도 철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기업의 철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베트남 정부와의 합작투자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통제와 관료의 금품요구 등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표 4〉 국별 투자현황  
(단위 : 십억달러, 건)

|   |       | 1994       | 1996      |
|---|-------|------------|-----------|
| 대 | 만     | 1.901(164) | 3.6(237)  |
| 홍 | 콩     | 1.551(164) | 2.2(164)  |
| 일 | 본     | 0.69(68)   | 2.1(129)  |
| 싱 | 가 포 르 | 1.055(77)  | 1.52(114) |
| 한 | 국     | 0.86(92)   | 1.5(137)  |
| 미 | 국     | 0.223(26)  | 1.14(53)  |
| 프 | 랑 스   | 0.546(59)  | 0.639(70) |
| 영 | 국     | 0.345(14)  | 0.477(14) |

자료 : Sales & Marketing Management, 1996. 5.

주 : ( )안은 투자건수  
1996년은 추정치임.

국내기업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는 한국은행통계 기준으로 1995년 말 현재 총 128건 14억 7,490만달러에 달하였다. 지난 1991년만 해도 4,000만달러에 불과하였던 국내기업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는 1992년에 1억 달러를 넘어선 후 1993년에는 3억달러를 돌파하였으며 1995년에는 6억달러에 육박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당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일부 업종에 투자가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

기업의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이미지 및 현지 생산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

업종별 투자를 살펴보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대베트남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국내기업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제조업중에서는 섬유·의류, 신발, 가죽제품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 대해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중화학분야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유형태별로는 단독투자의 경우 소액투자가 대부분이며, 합작투자의 경우는 소유지분이 50~70%로 국내기업들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기업의 직접투자는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규모 투자는 하노이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저임을 활용하여 제3국시장에 우회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사회간접자본이 비교적 양호한 호치민시를 투자업지로 선정하고 있으나 베트남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직접투자는 수도권지역에 투자하는 편이 경영관리상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국내 대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확대되면서 조만간 우리나라가 최대의 대베트남 직접투자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내의 5대 재벌기업들은 아직까지 베트남의 투자환경과 관련하여 불투명한 점이 많으나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장선점을 위한 베트남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증가하면서 그동안의 소형, 노동집약적이었던 투자패턴도 자본집약적이며 대형화되고 있다. 또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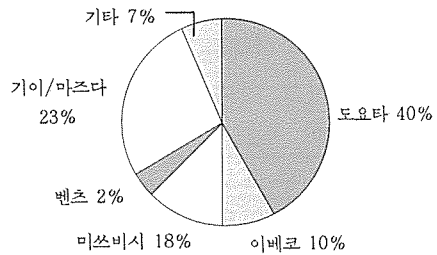
업종도 섬유업 중심에서 자동차 및 부품, 수리조선, 가전, 광섬유를 포함한 통신장비, 석유정제, 철강, 건설, 시멘트, 발전설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로 일본, 싱가포르, 대만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통신, 석유화학, 유전개발분야 등에서 베트남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미국기업과의 경쟁이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수출입은행 등이 자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융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미국기업들은 대규모 베트남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 3. 자동차산업현황

베트남 정부가 1995년 11월에 외국 자동차업체에 대한투자허가 방침을 변경한 후 외국 자동차업체들의 베트남 진출이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일본과 유럽의 1개 업체, 2개의 미국업체로 투자허가대상을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경쟁을 통해 자국 자동차산업을 육성해 나아간다는 목표 아래 동 계획을 철회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에만 7개의 자동차업체가 투자허가를 받았으며, 지난해에 3개업체가 추가로 허가를 받음으로써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국자동차업체 수는 14개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투자허가건수가 증가하자 현지에 진출해 있는 외국 자동차업체들은 경쟁의 심화와 내수부진, 엄격한 현지 부품사용 요구와 함께 시장확보와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 필요성에 따라 단기적인 이익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합작투자가 이루어진 후 10년간 현



[그림 2] 자동차업체별 시장점유율(1995, %)

지 부품사용 의무비율 30%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 베트남 소비자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2륜차를 4륜자동차로 교체할 만큼의 소득을 올리고 있지 못해 자동차 판매는 단기적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 자동차시장이 성숙단계에 진입하기에는 10년의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고급차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BMW가 베트남시장의 판매부진으로 수개월간 1일 1대의 승용차밖에 생산하지 못한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판매부진으로 일각에서는 일부 자동차업체들이 수년내에 파산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즉, 메콩사나 베트남 모터와 같은 소형업체의 도산을 예견하고 있다. 외국기업과의 합작업체인 메콩사는 국민차를 개발하여 생산할 계획으로 2개의 공장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내수판매가 부진하고 수출도 100대 수준에 그쳐 25,000대의 생산능력을 가진 메콩사는 연 1,5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어 베트남의 인당 소득이 3,000달러에 달하는 시점 이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의 투자자유화조치는 베

(표 5) 주요 자동차업체의 진출현황

(단위 : 백만달러)

| 합작업체                   | 투자금액 | 생산모델                             |
|------------------------|------|----------------------------------|
| Saeilo/쌍용              | 36   | 피아트 Tampra, 메콩 스타, 이베코 밴(25,000) |
| Colombian Nichmen      | 33   | 프라이드, 마즈다 323, BMW               |
| 대우                     | 32   | 씨에로, 에스페로, 프린스                   |
| 미쓰비시/프로톤               | 50   | 프로톤 Wira, Pajero, 캔터 트럭, 밴       |
| 벤츠, 싱가포르               | 70   | E320, MB140/180                  |
| 다이하츠/PT Astra/PT Mitra | 32   | 점보 트럭                            |
| 스즈키/닛쇼 이와이             | 21   | 캐리-T밴, 미니버스                      |
| 도요타/KUO Pte            | 90   | 코롤라, 히야세 밴(20,000)               |
| 포드                     | 103  | 트랜실 밴, 에스코트                      |
| 크라이슬러                  | 192  | 니온, 체로키(17,000)                  |
| 이스즈/이토추                | 50   | 팬더 픽업                            |
| 히노/스미토모                | 17   | 5톤 트럭, 30인용 버스                   |
| 닛산/마루베니/Tan Chong      | 84   | 씨니, 어반                           |

자료 : Financial Times

주 : ( )안은 생산능력

트남 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현지 진출 외국 자동차업체들은 당분간 소규모 현지생산에 그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 첨단기술의 이전을 회피할 예상이며, 부품산업의 육성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즉, 소규모 내수하에서 당분간 다수의 업체가 다양한 모델을 생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부품의 대량생산이 어렵고 부품산업의 현지화나 현지조달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 자동차업체의 베트남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닛산자동차가 다낭에 조립공장을 설립하도록 허가받음으로써 외국 자동차업체의 대베트남 투자규모는 9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닛산자동차는 베트남의 다낭자동차공업과 75 : 25 비율의 합작투자를 통해 1998년에 1,000대의 승용차와 픽업트럭을 생산한 후 생산량을 2000년

까지 3,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요타자동차는 1994년에 현지기업과 4,914만달러의 합작투자를 통해 베트남에 진출하였으며 투자금액을 1억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합작기업의 지분은 도요타사가 70%, 현지 VEAM사가 20%, 싱가포르의 KUO사가 1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도요타사는 금년부터 1,000명의 고용인원으로 연산 10,000대의 소형 상용차와 승용차를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이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생산량은 20,000대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베트남 자동차시장 전망이 중단기적으로 밝지 못하자 호치민시의 외곽에 1억 9,2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크라이슬러사와 하노이에서 버스 합작생산을 계획중인 볼보사는 투자계획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즉, 베트남 정부가 다수의 외국 자동차업체에게 투자를 허가해 줌으로써 과당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국인 태국이 2000년까지 연산 10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프로톤사도 금세기 말까지 생산규모를 50만대로 확대한 후 생산능력을 100만대까지 확충할 계획이어서 베트남시장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의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장환경에 따라 폴크스바겐사는 1995년 11월에 베트남에 조립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푸조, 혼다, 현대자동차는 범세계전략 차원에서 투자의향서를 베트남 정부에 제출하였다. 베트남 2륜차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혼다는 기존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2륜차 현지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도 2억 5,000만달러를 투자하여



베트남 남부 해안지역인 붕타우에 공장을 건설하려 하였으나 베트남 정부는 내수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을 이유로 불허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현대자동차가 65%, 새영 인터내셔널이 15%, 베트남 내무부가 2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베트남 보 반 키에트(Vo Van Kiet) 수상은 외국기업의 추가투자를 허가하기 전에 기존 14개 외국합작 자동차회사의 운영실태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산업부는 동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베트남 투자계획의 선부른 변경은 향후 베트남 정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성숙단계에 진입할 때까지 소규모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 4. 타이어 업체의 진출방안

##### (1) 베트남 타이어산업현황

타이어산업은 베트남의 주요 산업중 하나이다. 베트남의 타이어 생산량은 1995년에 42만 5,000개에 달하였으며 2000년에는 61만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 타이어업체의 베트남 진출이 점증하면서 베트남의 타이어 생산은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이미 중국의 칭신타이어가 2억달러를 투자, 지난해부터 타이어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대만의 켄다고무도 친퐁에 소재한 현지 이륜차 생산업체와의 소수지분 출자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하였다. 켄다고무는 하노이 근교에 1,500만달러를 투자하여 모페드, 스쿠터, 자전거용 타이어를 금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컨티넨탈과 요코하마 타이어도 합작

투자를 통한 베트남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컨티넨탈은 베트남에 자체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대우와 합작투자를 검토하는 한편 베트남화학사와의 연산 550만개의 승용차용 타이어 및 튜브 합작생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컨티넨탈사는 구동독 정부와 베트남간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양호한 조건에서 베트남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코하마 타이어는 베트남에서 합작 자동차조립공장을 가동중에 있는 미쓰비시와 베트남 진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6,000만달러를 투자하여 호치민시 근교에 연산 45만개의 승용차용 및 경트럭용 타이어와 연산 900만개의 이륜차용 타이어를 생산할 계획이다. 요코하마사는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된 타이어를 아시아와 유럽시장에 수출할 계획도 모색하고 있다. 이외 인도의 Ceat사는 연산 50만개의 트럭용 바이어스 타이어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 아래 베트남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국내업체로는 대우가 하노이 근교 대우자동차 조립공장이 위치한 공단내에 1억달러를 투자하여 타이어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베트남 타이어산업 역시 외국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합작투자를 통해 현지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업체들은 당분간 이륜차용 타이어와 튜브 및 상용차용 타이어의 생산에 주력할 전망이다.

##### (2) 진출방안

베트남시장은 우리의 새로운 수출시장과 해외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후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베트남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향상되어 소비재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으며, 공업화의 추진에 따라 자본재, 중간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섬유, 봉제, 철강, 자동차, 가전, 원유, 천연가스 등의 분야가 유망투자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금융과 호텔, 관광 등 서비스분야도 투자대상분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외국 자동차업체의 현지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타이어 수요도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타이어시장의 수요가 당분간 신차용보다는 교체용 타이어에 대해 증가할 전망에 따라 국내업체의 베트남 진출전략은 교체용 타이어의 수출과 제3국 수출을 위한 신차용 타이어의 현지생산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내외 타이어업체의 베트남 진출이 점증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현지 사정과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단계적이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베트남 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의 빠른 전환을 이루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베트남 관료와 근로자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또한 정부의 통제와 규제도 상당부분이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이와 함께 베트남의 인당 소득이 250달러로 매우 낮고 인당 GDP도 1995년 1,236달러에 불과한 실정인으로서 구매력도 낮은 실정이다.

현재 7,500만에 달하는 베트남 국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자전거와 이륜차를 들 수 있으며 자동차 수요는 현지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임직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현지투자 기업에 대해 2대 내외의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현지 생산 자동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베트남 무역부가 1년간 지속되어 온 중고차수입 규제를 해제함에 따라 베

트남의 저렴한 중고차 수입이 다시 증가할 것이며 이는 신차판매를 제한할 전망이다.

한편 베트남 무역부는 지난해에 39,500대에 달하였던 자동차 판매가 2005년에는 105,00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자동차업체들도 베트남의 승용차 판매가 현재의 10,000대 수준에서 2000년에는 60,000대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80,00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단기적으로 베트남에서의 신차 판매는 매우 부진할 전망이어서 이와 같이 중단기적으로 베트남에서의 신차 판매는 매우 부진할 전망이어서 이를 고려한 진출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2~3년 사이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 노동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계 투자기업중 한국기업의 노사분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노사분규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는 현지 노동관련법규나 노동계약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숙련노동자와 중간관리계층이 부족한 점, 노사분규가 증가하고 있는 점,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고 사회편의시설도 부족한 점이 현지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상위법은 있으나 시행세칙 등 구체적인 규정이 모호하거나 미비한 경우가 많은 등 투자관련 법제의 미비도 진출 계획 수립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 5. 맺음말

이와 같이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아세안 가입을 통한 동남아국

가와외 협력강화 등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동남아국가들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그들의 개발경험과 노하우의 습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베트남은 차세대 동아시아의 고도성장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적절한 이행정책과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부 보수적인 관료들이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발전에 대해 경계심을 표명하면서 국영기업의 민영화도 상당기간 보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개혁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의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95년 초부터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뇌물요구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투자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경제분석가들은 베트남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낭비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부패의 만연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급진적인 경제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외부채를 축소하고 수출지향형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진출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이미 베트남 정부와 각종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1994년 말까지 12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26개국과 투자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아시아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EU와는 1995년 7월에 무역과 투자문제 등을 포함하는 포괄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최

근에는 미국과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의 정상회담을 통해 제2차 경협자금 지원, 과학기술센터 설립, 증권시장 설립 등에 관하여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베트남 증권거래소의 설립은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현재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베트남이 아세안에 가입함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AFTA 협상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1995년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은 AFTA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이며, 베트남은 아세안 가입을 통해 역내 관계에서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분명히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기업은 아직까지 베트남이 사회주의경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사회간접자본이 미비하고, 경제관련법령의 정비가 미숙하고, 금융시스템도 취약한 실정이며, 자본의 부족과 시장규모가 작고,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내수시장 지향형의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기업은 베트남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베트남 진출전에 베트남의 문화와 관습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베트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화교자본은 유사한 문화와 풍습 등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베트남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국내기업의 미숙한 경영능력이 노사문제 등을 유발하여 한국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